

Ⅲ. 결론

○ UR 농업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농업 개혁』에 대한 협상이며, 우리 농업에 대한 개혁을 아울러 요청하고 있음.

• UR 농업협상은 국제화의 시각에서 우리 농업을 새롭게 진단하고 국제화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음.

• 우리 농업의 국제화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이며 세계사적인 개혁의 물결이 아닐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UR 농업협상은 영세한 농민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이고 아픔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모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나누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UR 농업협상의 불가피성을 열심히 홍보하는 정부, 농산물 수입개방을 새로운 황금오리알로 생각하고 무엇을 수입해야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기업, 수입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때 농민들의 아픔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그 때문에 농민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소외의 식은 결국 그들을 또 하나의 테모대열에 서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결국 이 시점에서 UR 농업협상의 어려움을 전 국민이 나누어 갖는다는 마음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우리 사회에서, 고도의 산업정보화 사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왜 존재해야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농민의 사회적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재음미하는 국민적 노력이 일어나야 함.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농어촌발전 대책 특별위원회』와 같은 범국민적 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만일 UR 농업협상이 우리 사회에 그와 같은 노력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UR 농업협상은 『우리 농업의 끝』이 아닌 『우리 농업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임. 그것은 우리 농업의 내일도 결국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암울한 것이 될수도, 활력이 넘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임.

최근 UR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장승우/경제기획원

I. 향후 협상일정 및 협상전망

향후 협상일정 (TNC 회의결정)

• 8월~10월 : 각 협상그룹회의

- 10.8 : 각 협상그룹의 합의문안 TNC 제출
- 10.8이후 협상은 TNC 로 이관
- 10.1 : 농산물 Country List 제출
- 10.15 : 농산물등 각국의 개방계획(Offer list)

제출

- 11월 첫째주 : 개도국 관심사항 평가회의
- 11. 23 : 최종 협정문안 작성
- 12. 3~7 : 브릿셀 각료회의

○ 매우 촉박하게 짜여진 협상일정에서 보듯이 UR 협상은 앞으로 남은 4개월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

○ 남아있는 정치적 쟁점과 작업의 분량에 비추어 금후 협상과정이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나 12월초 브릿셀 각료 회의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

• 협상주도국인 미국과 EC 간에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됨에 따라 협상진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일층 강화

• 협상실패시 세계무역환경 악화에 대한 회원국의 공통인식 확산

• 미국은 협상이 결렬된 경우 각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재개하고 멕시코를 포함한 자유무역지대의 설치를 추진할 전망

○ 또한 UR 협상이 어느 수준에서 체결되느냐의 문제는 각 분야별 협상그룹에서의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앞으로 있게될 전체 무역위원회회의에서의 종합적인 의제간 상호절애(Trade-off)작업이 분야별 협상타결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최대 쟁점분야인 농산물 및 섬유분야는 미국과 EC의 최종 양보선이 앞으로 구체화될 전망

•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등에 대한 제도개선 협상도 농산물 등 여타 부문과의 연계아래 이루어질 전망

• 앞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집단적인 의사표명이 구체화될 전망이므로 개도국의 관심사항이 어느정도 반영되느냐도 전반적인 협상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의제별, 국가별 이해가 고려되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

• 이와같은 협상상황에 대처하여 정부는 의제간

Trade-off 등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가지고 개별의제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 신속성 있게 협상에 대처하여 국가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할것임.

• 일반국민의 UR 협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정치·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뒷받침이 필요함.

II.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UR 전체 의제중 농산물분야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일부 서비스업 분야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나 전체적으로 볼 때 UR 협상은 대외개방적 경제운용이 불가피한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1. 부담이 되는 측면

○ 상품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분야까지 시장개방 확대

• 금융·통신·교통등 아직 경쟁력이 빈약한 서비스업종은 이룬 상당기간 보호가 필요한 농업부문의 점진적, 단계적 개방 불가피

• 수입상품에 대한 각종 장벽이 철폐되고 외국인 서비스영업에 대해서도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가 불가피

○ 정부의 수출 및 산업지원정책 수행에 대한 제약 증대

•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조등 대부분의 정부지원 제한 불가피

• 금융·세계등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

○ 각국의 무역정책 및 개방화 추진에 대하여 GATT의 감시체제가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국제적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내정책이 GATT 규율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 필요

2. 유리한 측면

○ 세계교역환경의 개선에 따라 수출시장과 해외추

진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

-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고 선진각국이 GATT 규율에 벗어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수입 제한조치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가 수출을 늘려나가는 데 유리

-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용역해지고 해외투자에 대한 여건도 개선

- 통상문제가 GATT 체제내에서 다루어지게 되어 쌍무간 통상마찰의 완화 기대

- 그간 우리의 시장개방은 대부분 미국, EC 등 선진국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UR 협상체결 시 쌍무적인 협상방식이 크게 줄어들 전망

- 국제경쟁력 여하에 따라 산업구조 조정이 폭넓게 진행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구조조정 폭도 매우 광범위

-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

Ⅲ. 향후 대응방향

1. 그간의 대응

대외개방적 경제운용을 기조로 하는 우리로서는 UR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교역 규범의 정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구조의 개편 등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

- 정부는 UR협상이 우리의 교역 및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UR개시와 동시에 국내대응체제를 마련

- '86. 12월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UR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UR에 대한 아취입장을 종합조정

- 현지협상은 주제대바 대표부를 보장하여 대응

- UR관련 모든 협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

- UR관련 각종 공식, 비공식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농산물분야 등 우리의 관심분야 협상에서 다수 서면 제안

- UR협상결과와 관련된 국내관련제도 개편 등 보완대책을 각부처별로 강구중

2. 향후 협상 및 국내대응

(1) 협상대책

- 각의문별로 세부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신축성있는 협상대안 및 논리개발

- 10월이후에는 의제별 협상에서 TNC에서의 종합협상으로 전환될 전망이므로 농산물협상에 있어서의 아국입장 관철을 위하여 각의제문 Trade off를 대비한 대안을 개발

- 각부처가 소관의제 세부분야에 대해 우선순위 설정 및 협상 대처

- 각부처에서는 학계전문가, 각종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협상에 반영

- 각국의 주장을 예의분석하여 동조국과의 공동 노력 강화

- 의제간 입장조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노력하여 국내산업정책과 협상을 연결하는 대책을 수립

- 대외협력위원회 및 UR대책 실무위원회의 조정기능 대폭강화

- 농산물협상에 관하여는 각부처 공동전략으로 각급협상에서 우리농업의 특수성에 따른 입장을 일관성 있게 주장

(2) 국내대응

- UR협상을 계기로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추진키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제도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재정비작업 필요

- 각종 산업지원정책의 전반적인 정비

- 서비스분야를 포함한 각종 산업관련시책 및 법령의 정비

• 대내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제도의 보강과 재정규제의 완화

○ 특히 농산물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UR협상이 체결되더라도 그 시행시기는 '92년 이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남은 기간동안 협상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시행착오 없는 보완대책을 마련

○ UR협상과 국내제도개선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 마련

• 협상진전에 따라 UR대책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협상대응과 더불어 국내 제도개선에 보다 역점을 둠

○ 우루과이라운드가 우리경제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계 및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노력

GATT/UR 농산물협상 전망과 대책

조규일/농림수산부

I. 협상전망

○ 의장초안은 금후협상에서 각국의견을 반영, 수정될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협상분위기로 볼때 NTC 등 수입국 입장은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8월 회의부터는 초안(Draft Text)의 내용에 대한 협상과 더불어 관련 GATT 규정(11조, 16조, 20조 B 등)의 개정작업이 집중 논의될 것이며, Offer 제출에 대비한 감축원칙에 대한 협상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행계획(offer)은 합의될 감축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10.15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Country List에 년도별 감축계획을 추가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예상되며 Offer에 대한 양자협상은 Rule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아 개별국가의 협상력에 크게 좌우됨으로서 협상력

이 약한 개도국, 수입국등에 크게 불리할 것이 예상된다.

○ 결론적으로 수입국 입장의 추가 반영, 감축폭의 결정등에 있어서 의장초안은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GATT의 농산물 교역규범은 현행보다 대폭 자유무역체제로 개편될 것이 확실시됨.

II.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예상효과

1. 예상효과

○ 점진적인 수입개방 불가피

- 기존의 수입자유화품목의 현행관세 수준 동결
- 현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자유화와 동시에 국내외가격차만큼의 관세상당액 부과
- 그러나, 관세상당액은 계속 감축됨으로서 경쟁력이 빈약한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유지에 큰 어려움 예상